2013년 초연 이후 청소년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대표 청소년 연극 ‘사춘기 메들리’가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는 스트리밍 공연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체험학습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연극 ‘사춘기 메들리’는 반가운 소식일수밖에 없다. 온라인 연극 ‘사춘기 메들리’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개인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관람을 하며, 게시글을 통해 학생들과 배우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소통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극’사춘기 메들리’는 다음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곽인근 작가의 웹툰이 원작으로 2013년 KBS TV

드라마 스페셜 4부작으로 제작되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드라마 최초로 수상했던 작품이다.

웹툰 원작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기반으로 소극장 연극 무대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되어 또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따듯한 감동을 전해준다.

누구나 한 번쯤 있는 첫사랑의 풋풋했던 감정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나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전 세대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비대면 공연을 기획한 팀플레이예술기획의 조성종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연극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극장과는 또 다른 이색적인 현장체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문의는 1661-6981

